

전남도 2022 양대선거
설 특집조사 설문지

01. 먼저 귀하의 연령은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?

①번, 만 17세 이하 (≡ '조사 종료') ②번,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③번, 30대 ④번, 40대 ⑤번, 50대 ⑥번, 60대 ⑦번, 70세 이상

02.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?

①번, 나주·화순·담양·장성·영광·함평 ≡ (광주권) ②번, 곡성·구례·광양·순천·여수·고흥·보성·장흥 ≡ (동부권) ③번, 목포·영암·강진·완도·해남·진도·신안·무안 ≡ (서부권) ④번, 다른 지역 (≡ '조사 종료')

03. 귀하께서 남성이시면 ①번, 여성이시면 ②번을 눌러주세요.

04. 귀하께서는 다음 여섯 사람 중에서 차기 전남도 지사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호명은 순환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['보기 ①~⑥번' 로테이션]

①번,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 ②번, 김화진 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③번, 민정기 현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 ④번, 서삼석 현 국회의원 ⑤번, 신정훈 현 국회의원 ⑥번, 이개호 현 국회의원 ⑦번, 다른 인물 ⑧번, 없음 ⑨번, 모름

05. 그럼 다음 세 사람 중에서 차기 전남교육감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호명은 순환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['보기 ①~③번' 로테이션]

①번,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 ②번, 김동환 광주·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상임대표 ③번, 장석웅 현 전남교육감 ④번, 다른 인물 ⑤번, 없음 ⑥번, 모름

06. 귀하께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①번, 매우 잘함 ②번, 다소 잘함 ③번, 다소 잘못함 ④번, 매우 잘못함 ⑤번, 모름/기타

07. 귀하께서는 전남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['보기 ①~⑦번' 로테이션]

①번, 일자리 창출 ②번, 저출산·고령화 대책 ③번, 자영업·소상공인 지원 ④번, 광주·전남 행정통합 ⑤번, 농수산물 판로 확대 ⑥번, 코로나 교육격차 해소 ⑦번,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⑧번, 모름/기타

08. 그럼 광주와 전남의 행정과 경제를 통합하는 '가칭' 광주전남 행정·경제통합'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①번, 매우 찬성 ②번, 다소 찬성 ③번, 다소 반대 ④번, 매우 반대 ⑤번, 모름/기타

09. 귀하께서 현재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호감 가는 정당은 어디입니까? '국회의석순'입니다.

①번, 더불어민주당 ②번, 국민의힘 ③번, 정의당 ④번, 국민의당 ⑤번, 기타 정당 ⑥번, 없음 ⑦번, 모름

이정선 우세 속 부동산 34% '안갯속'

2~5위 후보군 2.7% 포인트 내 혼전 양상

광주시교육감

올해 제8대 6·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교육감 인물 적합도 조사에서 이정선 전 교육대 총장이 17.1%,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이 10.8%의 지지율을 보이면서, 이정선 전 총장이 지병문 전 총장을 오차범위에서 벗어난 6.3% 포인트 차로 앞섰다.

이어 박해자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10.5%,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9.0%,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8.1%, 김선호 광주 동아 여중·여고 관선 이사장 2.9%였다. 없음·모름은 34.0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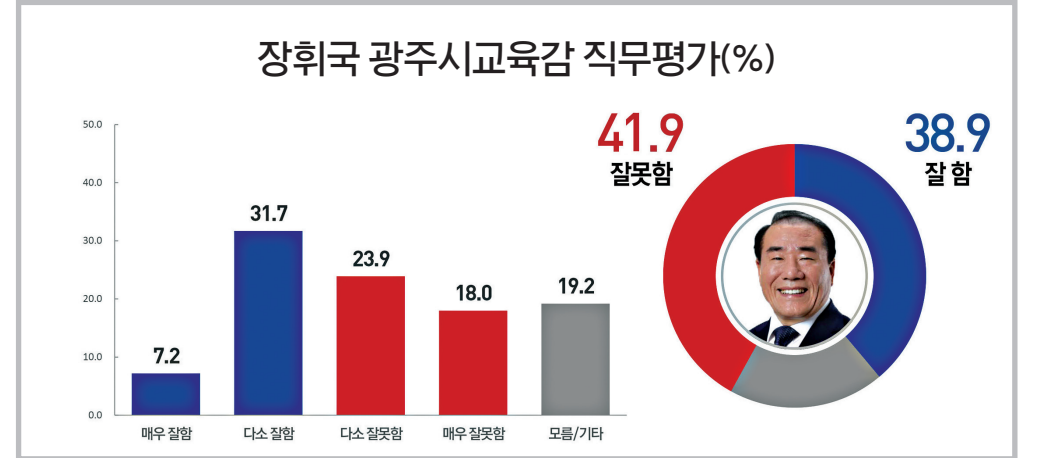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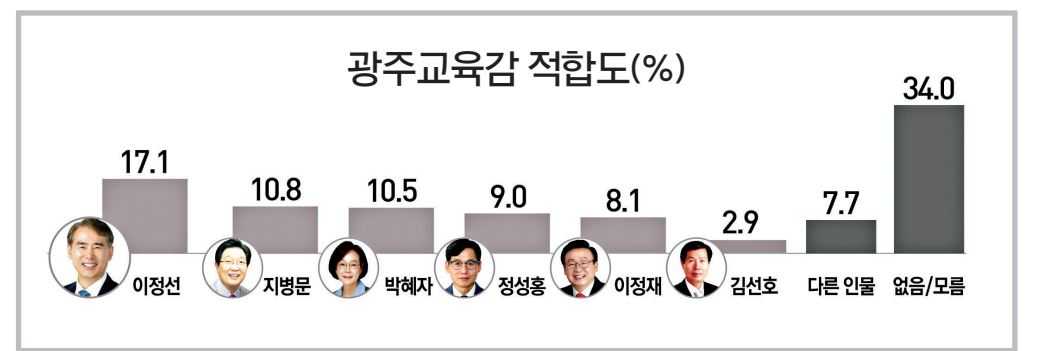
이 중 2~5위를 기록한 네 명의 후보군 지지율 격차는 2.7% 포인트에 불과해 2위 다툼이 치열한 데다, 부동산이 30%를 넘으면서 향후 선거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.

세대별로 이정선 전 총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병문 전 총장보다 지지율이 높았다. 특히, 60대(35.0%), 70대 이상(23.7%)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 30대(이정선 전 총장 8.9%·지병문 전 총장 8.2%)와 50대(이정선 전 총장 16.2%·지병문 전 총장 15.2%)에서는 접전을 벌였다. 박해자 전 위원은 30대(11.9%), 정성홍 전 지부장은 40대(12.2%)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지역별로도 이정선 전 총장은 모든 권역에서 지병문 전 총장을 따돌렸다. 동구에서는 이정선 전 총장이 22.6%의 지지를 받아 3.9%의 지병문 전 총장을 큰 차이로 압도했다. 남구에서는 이정선 전 총장 15.3%, 지병문 전 총장 15.2%로 0.1% 포인트 차이 박빙이었다.

장회국 교육감에 대한 직무평가는 긍정평가가 38.9%(매우 잘함 7.2%, 다소 잘함 31.7%), 부정평가가 41.9%(다소 잘못함 23.9%, 매우 잘못함 18.0%)로 부정률이 3.1% 포인트 더 높았다. 모름·기타는 19.2%였다.

한편, 이번 조사는 전남매일·뉴스1·남도일보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월 24~25일 이틀간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,000명(후대전화 가산번호 100%)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.



통계보정은 2021년 12월 말 기준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·연령·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 3.1%포인트이며, 응답률은 9.6%다. 자세한 내용은 전남매일·뉴스1·남도일보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/이나라 기자

재선 도전 장석웅 '선두' ... 김대중·김동환 추격

현 교육감 40대 이상 연령층서 초강세

전남도교육감

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후보군들의 적합도 조사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장석웅 현 교육감이 36.2%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.

이어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 11.7%, 김동환 광주·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상임대표 9.7%였다.

장 교육감은 두 명의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21.4%와 비교해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14.8% 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. 없음·모름은 33.0%, 기타 인물은 9.3%였다.

전 계층에서 장 교육감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40대(37.6%), 50대(40.4%), 60대(43.2%), 70대 이상(44.8%)에서 30~40%대의 지지율로 강세를 보였다. 30대에서는 장 교육감 19.6%, 김대중 대표 16.8%로 접전 양상이었다.

권역별로도 장 교육감이 서부권(목포·영암·강진·완도·해남·진도·신안·무안) 40.1%, 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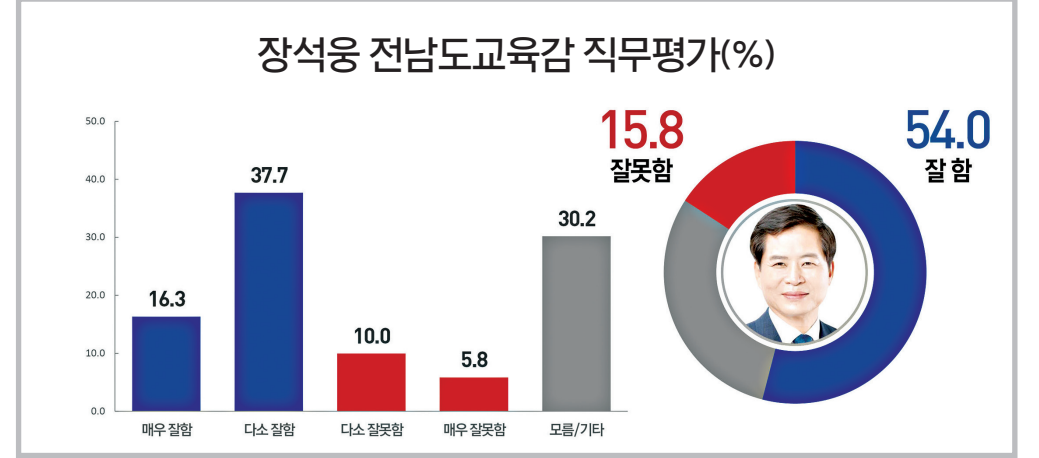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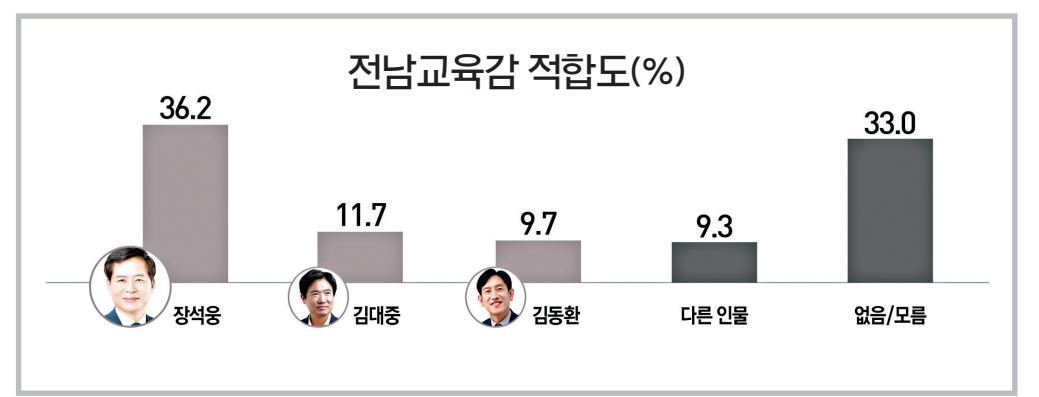
주권(나주·화순·담양·장성·영광·함평) 35.8%, 동부권(곡성·구례·광양·순천·여수·고흥·보성·장흥) 33.8% 등 고른 지지율을 얻었다.

김대중 대표는 광주권(13.6%), 70대 이상(10.5%)에서, 김동환 대표는 광주권(11.9%)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.

장 교육감의 직무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54.0%(다소 잘함 37.7%·매우 잘함 16.3%), 부정평가가 15.8%(다소 잘못함 10.0%·매우 잘못함 5.8%)로 긍정률이 과반을 넘었으며, 부정률보다 3.4배 더 높았다. 모름·기타는 30.2%였다.

이번 조사는 전남매일, 뉴스1, 남도일보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4~25일 이틀간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,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(후대전화 가산번호 100%)으로 진행했다.

통계보정은 2021년 12월 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·연령·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 3.1%



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 3.1%포인트, 응답률은 10.0%다. 자세한 내용은 전남매일, 뉴스1, 남도일보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/이나라 기자



[주]백양실업 임직원 일동
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/ TEL 061) 392-7900